

순창군 청년 귀농인 잡는다

서울 aT센터 '성공귀농 박람회' 참가... 선배귀농인 대거 참여 홍보

순창군은 최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1번지 순창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 군 관계자는 물론 산림조합, 귀농귀촌협회, 시군법인 10년 후 순창 등 선배귀농인이 대거 참여해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순창군의 홍보관은 우수홍보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우수홍보관에 참여 지자체 중 순창군을 포함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택분야 홍보에 집중했다.

군은 마을의 빈집을 소유주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보수에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립민 월정리 군유지에 주택 10세대를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 중이다. 또 휴먼건축 연구소 설립에서는 생태건축사업을 통해 귀농인 임시거주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방문한 김현주(서술, 60)씨는 "순창군과 상담을 해보니 타 지자체에 비해 체계적인 귀농정책을



최근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순창군 홍보관이 우수홍보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고 순창으로 귀농을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 귀농·귀촌협회 양환욱(72)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젊은 도시민이 순창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희망을 보게 됐다"며 "예비 귀농인들이 순창으로 귀농했을 시 불편함

이 없도록 농작물 교육, 주거지 조성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귀농 홍보를 위해 대도시 찾아가는 귀농사업 홍보와 서울 방배동에 수도권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30일~31일까지 2일 동안 수도권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귀농 1번지 순창 알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세탁·건조까지 무료 서비스

임실군자원봉사센터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운영하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이 주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동빨래방'은 드럼 세탁기 4대와 자가 발전기를 갖춘 3.5톤 차량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110여 회 이상 운영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마을 및 면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여르스들이 하기 힘든 이불 및 대형세탁물 등의 세탁, 건조까지 One-Sto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는 6월까지 일정

이 잡혀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봉사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9년 11월 개소된 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단체)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동빨래방 이용을 원하는 마을이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642-3650) 또는 국번 없이 136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월 개관

백두대간 달리다 '노치와 범이' 전시·서클영상관·곤충온실 등 갖춰

백두대간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4월 말 오픈을 앞두고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점검 정비사업 등 생태교육장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서 생태교육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전운영을 통해 시설, 프로그램 등의 미비한 문제들을 완벽히 보완하고 지난 3월 초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원과 운영인력을 선발해 안내 및 운영, 서비스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일원 32,967㎡ 부지면적에 지난 2013년 착공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백두대간 산줄기를 본떠 만든 전시관 지붕의 외관으로 시선을 끌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전시동, 곤충온실, 야외공연장 등이 마련되었다.

주요시설으로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리더를 타고 백두대간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드론 전경사진

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백두대간 달리다',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360도 서클영상으로 전달한 '노치와 범이'가 주목할 만한 전시물이다.

특히, 호남관에서 최초 서클영상관은 주인공 길상이의 움직임에 따라

바다의 움직임, 번개, 바람효과로 관객 자신이 주인공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고 있다.

또한 체험학습공간으로 곤충온실과 조류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동물과 교감하고, 곤충생태를 심화할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세계 소스박람회' 5월5일 개막

8일까지 고추장마을·토굴형저장고서... 10국 100여 기업 참여

순창군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순창고추장마을과 토굴형저장고에서 '2016 세계소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진행하는 세계소스박람회는 'Feel Spicy in Sunchang'이라는 주제로 세계 10개국 1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특히 이번 세계소스박람회는 순창고추장마을이라는 문화자원을 그대로 박람회의 공간으로 활용해 한국전통소스를 세계에 홍보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의 소스시장의 흐름과 다양한 소스를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난해 장류축제 기간에 축제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미니 박람회를 탈피해 독립된 대규모 박람회로 치러지는 첫번째 행사라는 의미가 크다.

박람회는 3개 행사장으로 구성된다.

제1행사장은 60여개의 국내외 소스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B2B 행사장과 함께 바이어 상담회가 진행된다. 국내

소스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추장 뽕장, 참장 등을 활용한 소스광장과 아트조형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2행사장은 고추장마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장아찌, 참장 등을 체험하는 집밥 프로그램 등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장류체험관에서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DIY(Do it Yourself) 떡볶이 DIY 파스타와 스파게티를 10여종의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겨 볼 수 있다. 두릅 등 지역의 향토농산물과 소스를 결합한 먹거리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제3행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토굴저장고를 소스멀티플렉스관으로 활용하여 세계소스 기획관, 소스미디어아트관, 소스 갤러리관 등 관광객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세계소스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독특한 행사장으로 꾸며진다. /순창=구인규 기자

지역특이점

임실군, 위·변조 방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홍보

임실군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강화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06년 10월 31일 이전 발급인을 대상으로 위·변조 방지 특수가방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으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이다.

발급일은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앞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및 귀와 눈썹이 보이는 증명 사진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은 임실군 민원팀(☎640-2254)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축산농장 안내판 설치지원

고창군이 축산농장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내 축산농장을 아름답고 친화적인 농장으로 가꿔가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제각각으로 설치된 축산농장 안내판을 규격화하고 통일화한 안내판 설치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축산농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악취 발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기도 하는 축산농장을 보다 친화적으로 가꾸어가기 위해 안내판 설치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해 20개소의 농장에 안내판을 지원했고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올해 군비 등 3000만원을 투입해 20개소 농장에 안내판 설치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안내판 지원 농가는 농장 진입로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화단 등을 조성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보건의료원, 영농철 조기진료

임실보건의료원은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신속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앞장선다.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 직원들은 조기출근을 실시하며, 진료시간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해 아침 일찍의료를 찾는 군민들에게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으로 오쇼' 프리마켓 성황

고창군의 다양한 특산물과 먹거리 볼거리가 한자리에 모인 프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주최로 지난 28일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열린 '고창으로 오쇼' 프리마켓 행사에 군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프리마켓 오픈 기념식에는 김상호 고창군 부군수 이상호 군의장 이경신·박정숙 군의원과 식도락 14개 마을, 공동체 9팀, 고창군자원봉사총합센터,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무대공연과 포토존 사진찍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고창으로 '오쇼' 프리마켓은 전라도 사투리인 싸게싸게 오쇼 라는 뜻과 함께 5가지의 쇼(Show)라는 뜻으로 보러오쇼, 사러오쇼, 놀러오쇼, 먹러오쇼, 만들러오쇼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마을 단위 소규모가방을 다지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 형성을 도모하도록 마련됐다.

첫 번째 프리마켓 행사 이후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